

고객의 든든한 기술동반자

-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 한국전자파연구원은 전자파(EMC)분야의 특화된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한국전자파연구원(ERI, EMC Research Institute)
김경석 원장

“우리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기술력 향상 제고와 산업계의 기술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분의 연구원입니다.

그동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첨단 전자파 및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와 시험 시설을 갖추고 고객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제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시장개방을 통한 Global 경쟁시대로서 국제적 무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이 기업 생존

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자문, 규격인증 획득 및 품질 시험 평가를 통하여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One-Stop Service와,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 하면서 세계 최고의 전자파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연구원 임직원 일동은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이라는 소명의식으로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실현에 앞장서 세계 일류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와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불요 전자파에 의한 장해 및 위해성이 대두되자 전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 관련 분야의 연



구·개발 및 시험·측정에는 전문 인력과 고가의 측정밀기기를 필요로 하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자 국내 전기·전자·정보·통신 산업 분야 다수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문연구소 설립의 Needs가 제기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1997년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설립, 전자파분야로 특화된 전문연구원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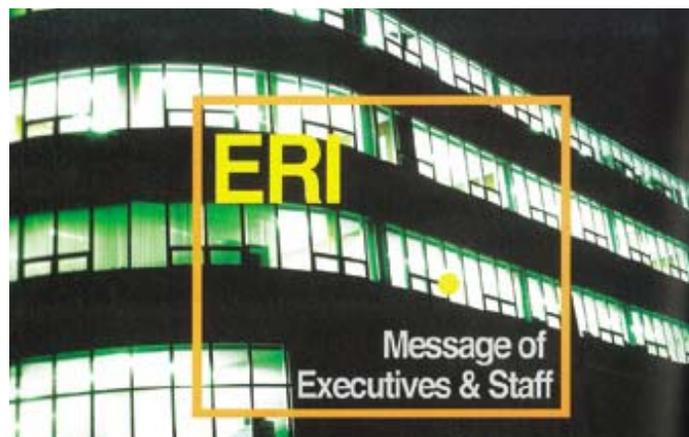
한국전자파연구원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공산품에 대한 전자파관련 생산기술 및 전자·전기·정보·통신제품의 제조와 표준화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연구, 개발하고 이를 산업계에 제공, 보급하여 국내 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국가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원, 국제기술협력, 시험연구시설 및 설비의 제공, R&D(정부위탁 연구과제수행), 전기용품 안전인증사업, 전자파관련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전문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등이 있다.

경영철학을 묻는 질문에 김원장은 “첫째, 고객중심의 고객감동 경영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날 치열한 국내의 경쟁여건 하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지향의 경영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One-Stop Service 지원체제의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분야의 확대, 우수 고객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한 전자파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의 발굴·수행, 시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전문 기술정보의



제공 및 기술교육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의 Needs를 충족시키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시험평가 기술의 국제화와 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 기업부설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시험평가 기술의 국제화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수출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시험평가기술의 국제화와 능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IECEE제도에 의한 CB시험소 등록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 내 NCB(국가인증기관) 지정을 획득, 국제적인 인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측정능력을 획기적으로 배양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전문 시험·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은 그 어느때 보다도 자신감 있는 어조로 대답했다.

한국전자파연구원의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연구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국가산업기술기반 구축으로 기업활용도의 제고, 중소기업 핵심애로기술 지원, 연구원의 기술 인프라 구축이라는 연구개발 및

융역사업 분야와 Home Doctor식 기술지원, 단기애로 기술 지원, EMC연구설비 개방 및 기술지도 등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산업도 계획중이라고 한다. 또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지원, 전자파 적합성 평가지원, 전기안전 적합성 평가 및 KS지원, KS인증심사 및 제품심사 지원 등 지금까지 해오던 인증·시험·평가 지원사업 분야의 대내외적인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IECEE-CB Scheme에 의한 CBTL 품목 확대 및 NCB 지정 신청, 국내·외 인증 시험기관과의 업무협력 MOU 추진과 같은 연구원 인프라 강화에 힘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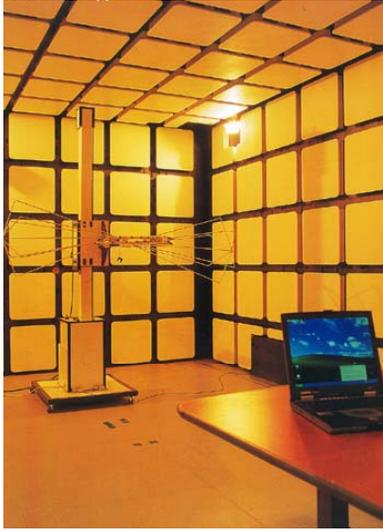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경쟁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자파연구원은 KAS(한국제품인정기구) 공동마크 추진, 고객지원업무 전산화의 추진, 연구원 C.I.(Corporate Identity) 개발 추진, EMC 기술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석과 중국지소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허가증' 발급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의 추세로 모든 전기·전자·정보통신기기들이 첨단 디지털 및 복합화 되어감에 따라 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문제의 해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전기전자 제품의 오동작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속에, 세계적(EU, 미주지역, 동남아 등)으로 전자파장해(EMI) 및 전자파내성(EMS)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 되어가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전자파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속에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정책 지원과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표준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에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EMC'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험설비와 평가능력을 완비하고 단순시험 서비스가 아닌 원천적인 규격대응 설계기술 확보와 문제점의 공동연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품 설계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지도 사업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기능을 적극 수행하기 위하여 타기관과 차별화된 '현장에로기술 위주' 고객 수요사업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각국의 안전규격 및 환경규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향후 2010년까지 세계 각국은 자국규격을 국제규격(IEC)으로 부합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전기·전자산업과 관련한 인증시장은 산업자원부 소관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KS제품인증, 에너지 소비효율제품 등록, 정보통신부 소관(MIC마크)의 정보기기 전자파적합등록, 무선설비기기 형식검정/등록,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의 의료기기승인, 행정자치부소관의 소방용기계·기구형식승인, 해양수산부의 조선기자재형식승인 등이 있다.

현재 연구원이 서비스하고 있는 시험·인증분야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KS제품 시험, 효율제품 등록 시험, 정보통신부 소관(MIC마크)의 정보기기 전자파적합등록 시험, 행정 자치부 소관의 소방용기계·기구형식승인 전자파시험 등이다.

연구원은 비록 인증시장에서 짧은 역사로 인한 20%대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사업다각화 및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험·평가·인증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점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첨단 시험과 검사능력을 무역기술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이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수출시 수입국에서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수출지연과 과중한 시험검사 비용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전자파연구원은 지속적인 CBTL 품목확대 및 NCB 지정을 통한 시험·평가·인증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관련기업에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따른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원 내부 취약한 부분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통해 시험·평가·인증 능력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김정석 원장은 "21C 디지털 종합기술연구원 실현"이라는 말로 운을 띄웠다. 이러한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R&D활성화(R&D 중심의 기관화), 제품인증 Global화, 기업기술지원 거점 구축, 고객지원체제 혁신이라는 과제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